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깜짝 美 고용에 시장 급제동... 다시 필요한 파월의 교통정리

서울, 2월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은 시장에 충격을 안긴 미국 고용 지표에 단기 고점 근처로 급등하면서 한 주를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달러 반등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수급 대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20-1,250원이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1월 미국 고용 지표 탓에 달러는 최근 저점에서 급반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소화하면서 정책 완화 기대 회로를 강하게 돌렸던 달러는 비교적 과격할 조정을 겪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는데도 최근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를 굳혔었고, 이에 견실한 미국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한 반작용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시장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연초 시장이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을 동시에 기대하면서 금융 완화 여건을 강화한 데 대해 이렇다 할 경계감을 보이지 않은 파월 스탠스가 재차 확인될지, 고용 지표를 감안한 매파 발언이 뒤따를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다른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덧붙여 주중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확산 리스크를 당분간 저울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도의 코스피 강세장 되돌림이 진행될 경우 원화도 이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환율이 아래로 보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중공업체 등을 비롯한 수출업체들의 대기 매물이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환율 급등에 따른 수급 주체들의 대응은 변수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연이은 수주가 전해졌던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이러한 수급 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주초 외환 당국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기관 거래 조건과 허용 범위를 포함해 외환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정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이벤트로는 호주중앙은행 정책회의와 국내 12월 경상수지 등이 있다. 주 후반에는 중국 물가 지표와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된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2월6일(월)

- 금융감독원: 원장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 간담회 (10:00)
-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 (14: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 (16:00)
- 기획재정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 (영국 런던, 6~9일)

2월7일(화)

-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10:00)
- KDI: KDI 경제동향(2023. 2) (12:00)
- 한국은행: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BOK이슈노트 2023-4) (12:00)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4:00)
- 기획재정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 (영국 런던, 6~9일)

2월8일(수)

- 기획재정부: 부총리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 (07:30)
- 한국은행: 2022년 12월 국제수지(잠정) (08:00)
- 통계청: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15:00)
- 기획재정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 (영국 런던, 6~9일)

2월9일(목)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9:00)
- 기획재정부: 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09: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KDI: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12:00)
- 한국은행: 2023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한국은행: 2023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12:00)
- 통계청: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12:00)
- 통계청: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00)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4:00)
- 기획재정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 (영국 런던, 6~9일)
- 기획재정부: 2차관 OECD 등 주요기관 정책협의 (프랑스 파리, 9~10일)

2월10일(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규정변경예고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09:3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10:30)
- 한국은행: Banking Crisis,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BOK경제연구 2023-4호) (12:00)
- 기획재정부: 2차관 OECD 등 주요기관 정책협의 (프랑스 파리, 9~10일)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2월6일	18:30	유로존	셉틱스지수	2월		-17.5
2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2월	-1.3%	0.8%
2월7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월		116.31
2월7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2월		-1.2%
2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월		1,227.6B
2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2월		-0.5
2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2월		-1.2
2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월		3.128T
2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2월	24.50B	27.96B
2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월		2.7%
2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12월		1,803.6B
2월8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월3일 주간		232.4
2월9일	00: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12월		0.1%
2월9일	00:00	미국	도매판매 MM	12월		-0.6%
2월9일	22: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30일 주간		183k
2월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YY	1월		10.2%
2월10일	10:30	중국	PPI YY	1월		-0.7%
2월10일	10:30	중국	CPI YY	1월		1.8%
2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1월		11.8%
2월10-17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1월		1,400.0B
2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YTD)	1월		6.30%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7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2시3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워싱턴경제클럽 인터뷰 참석 (8일 오전 2시)
- ⊙ 티프 맥클럼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퀘벡 CFA협회 연설 (8일 오전 2시45분)
- ⊙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포용금융" 관련 연설 (8일 오전 4시)

2월8일(수)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월스트리트저널(WSJ) CFO 네트워크서밋 토론 참석 (오후 11시20분)
- ⊙ 리사 쿡 연준 이사, 정치경제연구공동센터(JPCE) 포럼 참석 (오후 11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투갈루 대학 '경제 이동성' 관련 행사 참석 (자정)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경제클럽 오찬 Q&A세션 참석 (9일 오전 2시30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아칸소주립대학교 농업경영 컨퍼런스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9일 오전 3시45분)

2월9일(목)

- ⊙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 발표 · 2월 통화정책보고서 발행 (오후 5시30분)

2월10일(금)

-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글로벌상호의존센터(GIC) 행사 연설 (11일 오전 2시30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S&P500 편입 90개사 이상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미국 미디어 및 소비자 관련 업체들이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월트디즈니와 뉴욕타임스가 8일, 뉴스코프가 9일 실적 발표에 나선다.

9일 펍시코의 실적 발표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S&P500 편입 기업 가운데 90개 이상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다.

레피니티브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190개사의 4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2.4% 감소해, 1월1일에 예상됐던 1.6% 감소 전망을 약간 하회했다.

### ⊙ 대형 에너지 기업 실적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은 대형 석유업체들의 기록적인 이익(2,000억달러)으로 이어졌다.

셸의 지난해 이익은 4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BP와 토탈에너지, 노르웨이 국영 에퀴노르가 며칠 안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덴마크 풍력 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와 독일

지멘스에너지가 대기하고 있다.

터빈 및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화석연료 업체들과 달리 투입 비용 증가분을 전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아이셰어스 클린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는 120%가 상승한 반면, SPDR S&P 석유·가스 ETF는 12% 상승에 그쳤다. 석유 및 가스 부문이 단거리 경주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마라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 ⊙ 호주·인도 금리 인상 전망

호주 중앙은행(RBA)이 7일 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적 상황은 지난달 만큼 명확하지 않다.

RBA의 공격적인 긴축 캠페인에도 물가상승률은 33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해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소매판매는 코로나 유행이 정점이던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주택 가격은 최소 1980년 이후 최대폭 하락하는 등 거시 지표들도 충격적이었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되는 한 상승하리라는 호주달러의 전망은 그대로다.

한편, 인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8일 25bp 추가 인상을 끝으로 인상이 중단되리라고 예상한다.

#### ⊙ 금융시장 전망

2023년 1월은 주식시장과 국채 시장에 있어 역대 1월 중 최고였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낙관론 덕분이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성장은 양호해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으며 통화 긴축 종료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한 해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1월의 지표는 중요하다.

중앙은행들이 아직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았는데도 연내에 통화 긴축이 일제히 중단되리라고 베팅하는 등 시장은 지금까지는 중앙은행과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독일의 물가 지표와 미국의 실업 지표, 소비자신뢰지수가 시장에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 ⊙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현재는 시장이 중앙은행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앙은행 인사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으리라고 할 수는 없다. 페테르 카지미르 및 클라스 노트 유럽중앙은행(ECB) 이사, 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수일 내에 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들어 미국 국채 수익률이 50bp 하락하는 등 시장이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금융 여건의 완화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은행에 좋지 않고,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좋지 않다. 결국 시장, 특히 국채의 움직임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연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달러/원 월간 전망 ①)-하락 추세 유지 vs 달러 반등... 환율 향방 의견 분분

서울, 2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스탠스, 세계 경기침체,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여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월 달러/원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도 시장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01.5-1,259.6원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월간 전망치를 보더라도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약 60원으로 넓게 제시됐다. 그만큼 2월 환율 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음을 보여준다.

달러/원 하락 추세가 유지되리라 예상한 전문가들은 최근 위험자산 반등,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등에 약달러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새해 들어 환율 하락을 이끈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속 연준이 2월 회의에서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원 환율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면, 최근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에 연초 흐름이 되돌려질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또한,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달러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고, 국내 수출 둔화 등 펀더멘털 요인도 여전히 환율 부담 요인으로 언급됐다.

####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180	124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10	1260
중국공상은행	유원준 팀장	1185	1255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00	125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190	1270
IBK기업은행	임기목 차장	1210	1270
KDB산업은행	류홍 대리	1200	1250
NH농협은행	배유리 과장	1200	126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210	1250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	1190	127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210	124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225	127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10	1290
평균		1201.5	1259.6

(편집 임승규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추가 인상 말하는 중앙은행들 vs 믿지 않는 시장

런던, 2월3일 (로이터)-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는 한때 시장 움직임을 이끄는 규칙서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사례를 보면, 연준은 금리를 2007년 이후 최고치로 25bp 인상했지만 트레이더들은 연준 경로 변경 시각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S&P500지수는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랐다.

채권시장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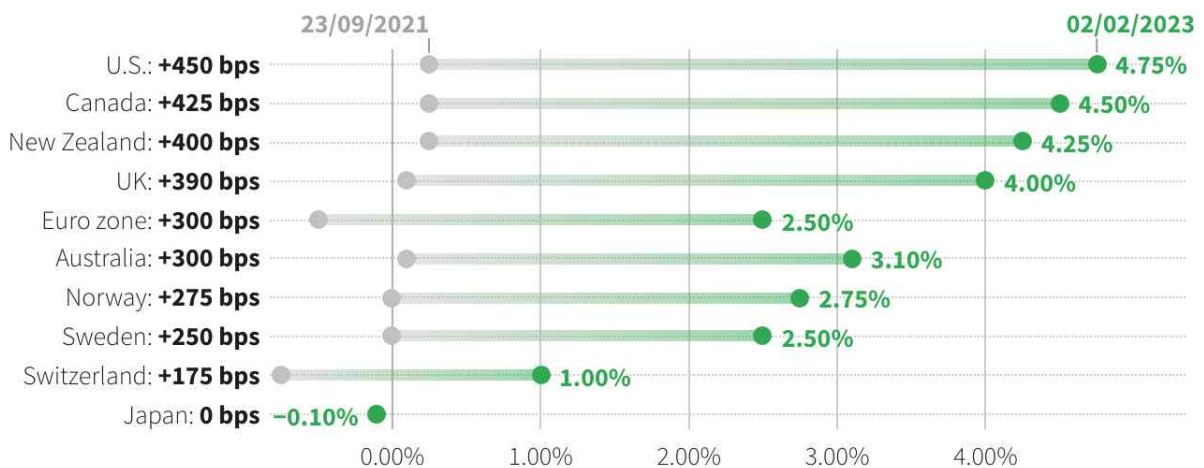
유로존 시장 역시 유럽중앙은행(ECB)이 2일 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3월 이후에도 같은 폭의 추가 인상을 약속했지만 랠리를 펼쳤다.

스톡스600 주가지수는 4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고,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근 1년 만의 최대폭인 23bp 하락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ECB가 긴급 부양책을 발동했던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일 최대폭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인터네셔널의 살만 아흐메드 거시 및 전략 자산 배분 글로벌 헤드는 "현재 시장은 '당신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생각을 바꿀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The race to raise rates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since the start of the interest rate tightening cycle in September 2021.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Feb. 2, 2023 | By Vincent Flasseur

◆ 중앙은행과 시장의 괴리

투자자들은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달했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약속하든 현재는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말한다.



시장은 또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금리 인상 효과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며, 이에 올해 후반 금리 인상 경로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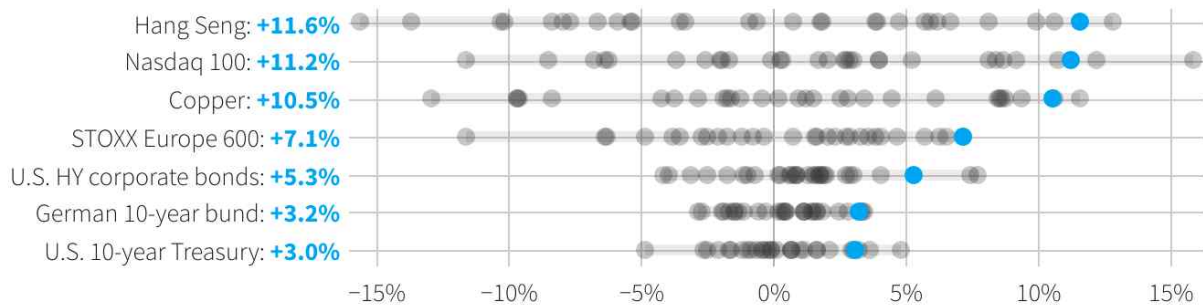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연말까지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CB의 경우 매파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2일 시장의 최종 금리 전망은 기존의 3.4%에서 3.25% 부근으로 낮아졌다.

더블라인캐피털의 제프리 서먼 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언급하며 "현재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나,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작년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6.5%로 하락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에너지 위기로 타격을 입은 유로존의 경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8.5%로 완화됐다.

## Off to the races

Selected assets' January performance over the last 30 years. 2023 data through January 27.



Note: Local currency price performanc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an. 30, 2023 | By Vincent Flasseur

### ◆ 중앙은행의 사정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다. 시장이 강해지면 긴축 노력이 상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베스코의 세바스찬 맥케이 다중자산 펀드 매니저는 "(중앙은행들은)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모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악화됐다"라고 덧붙였다.

시장은 또한 주요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킬 정도로 둔화되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금주 주요 중앙은행 정책회의 이후 주요 자산군은 그간의 랠리를 이어갔다.

미국 S&P500지수와 유럽의 스톡스지수는 올해가 시작되고 각각 8% 넘게 올랐으며, بانک오브아메리카의 미국 국채 지수.MERG0Q0는 약 3% 상승했다.

영국 국채 수익률도 2일 영란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음을 신호

한 후 급락했다.

HSBC자산매니지먼트의 조셉 리틀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국제 가격은 코로나 봉쇄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과 공급망 문제가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랠리를 보이고 있고, 주식과 회사채는 완화된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통화긴축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델리티의 아흐메드는 "누군가는 긴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운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Keywords: GLOBAL-MARKETS/CENTRAL BANKS (ANALYSIS, PIX)

##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15%, 유로화 -0.68%, 엔화 -1.01%, 위안화 역내 -0.07%, 달러지수 +1.05%
- 국내 주가: 코스피 -0.15%, 코스닥 +3.45%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15%, 나스닥 +3.31%, S&P500 +1.62%, 러셀2000 +3.88%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19.4 bps, 10년 -13.5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3.8 bps
- 미국 국채: 2년 +9.4 bps, 10년 +1.4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76.9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7.89%, 금 선물 -3.21%, 레피니티브/코어커머리티CRB지수 -4.04%